

임팩트그라운드

최종 결과 보고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2023-2024 ‘임팩트그라운드’ 사업결과 보고]

2025.01.21(화) 핸드스피크

구분		내용	자료
주요사업	공간	- DeafSpace(농문화공간) 계약 및 운영	p.2
	발굴	- 농인 아티스트 발굴 및 양성 / 총 70명 - 한국수어통역사 1명 신규채용 / 총 5명	
	양성	- 농예술아카데미 : 예비아티스트 40명 발굴 - 예술 수어 어휘 755개 수집 및 교재 틀 설정 - 2023 국제워크숍 <농MZ세대, 예술과 리더십 만나다> - 2024 농예술 제작 가이드 제작 : 농문화연기가이드, HTS	p.3 ~ p.7
	활동	- 누적관람객(조회수포함) : 500만명 - 농문화예술 콘텐츠 : 120개 <월간 핸드스피크>, <국립극장 맥베스, 우리읍내>, <EBS 덩동댕유치원>, <삼성전자:Global Accessibility Festival>, <경기아트센터 MV> 외 - <콜라보> 1MILLION, DeafWest,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 - <해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독일, 프랑스 - <수상> T4P 미디어상(Together for Peace Media Awards)	p.8 ~ p.12
홍보		552건 노출 언론매체: 323건, SNS(블로그,유튜브포함): 229건	p.13

농인이 원하는 방식과 문화로 증명하다

”농인 예술가와 농인 리더가 많이 세워지길“

KTX를 타며 매일 연습을 오고가는 농인 아티스트들이 물리적, 심리적 한계를 경험하며 더 이상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을 통해 농인 청년들이 전문적으로 예술교육을 받고, 주체적으로 더 다양하고 독창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착된 수어예술 어휘들을 시작으로 연구 및 개발된 사업들은 혁신적인 농문화예술 시스템을 만들어내며 전세계에 하나뿐인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더 이상 수어가 우리의 언어라고 외치는 일이 없도록, 삶에서 나오는 농인의 의한 진짜 예술로, 농인 선배 아티스트가 롤모델이 되어 농인 후배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이끌어 내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작업이다.

- 핸드스피크 미래비전계획서 중 -

핸드스피크는 농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이들이 예술교육과 일자리·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농문화예술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입니다. 이를 위해 농인 맞춤형 교육 시스템과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예술분야 수어 어휘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농인 아티스트의 배움과 성장, 농문화예술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2018년 3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약 70명의 농인 아티스트들이 활동 중입니다. 아티스트의 성장과 맞닿아 있는 예술 분야 전문 수어통역사 5명, 농문화예술 콘텐츠 120개, 예술 수어 어휘 755개 수집 및 연구, 핸드스피크의 노하우를 담은 다음 세대를 위한 ‘농예술 제작 가이드’, 홍보 노출 1,320건, 한국 농예술의 파워를 확인한 여러 국가의 글로벌 무대, 약 400만명의 관람객들. 무엇보다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었던 **Deaf Space(농문화공간)** 등.

핸드스피크의 활동을 통해 농인 아티스트들은 예술교육과 창작 활동을 경험합니다. 제 1언어가 한국수어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예술 제작에 대한 필요성과 진정성을 담아내는 교육 및 창작 작업 방식을 통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적 지지를 체감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를 주체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핸드스피크가 만들어낸 것은 농인 아티스트와 감동을 주는 농문화예술 콘텐츠만이 아니라, 그 성과를 만든 조직 문화와 방식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이번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통해 자본이 가져다주는 시장의 범위와 창출되는 임팩트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핸드스피크의 속도는 느린 것이 아니라, 제한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세계 농예술의 중심인 핸드스피크’를 꿈꾸며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꿈꿔봅니다. 더하여 차별과 불평등에 집중하지 않고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자유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핸드스피크의 콘텐츠와 조직 문화가 다음세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1. Deaf Space(농문화공간)

'농인 특성에 적합한 Deaf Space에서 진행되는 농예술'

Deaf Space(농 친화적인 환경)기반의 교육 환경 논의를 통해 농인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때 Audism(청인중심)의 환경이 아닌 농 친화적인 환경에서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마련한 공간이다. 단순히 잘 울리는 바닥, 전체적인 시각 확보 뿐만아니라 매순간 상황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논의될 수 있는 Deaf Space 논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콘텐츠 창작과 제작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 환경이 될 수 있는 곳이다. 공간을 매뉴얼화 하기 보다는 농인 당사자에 의하여 농 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농인의 공간에서 무한한 예술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한다.

1) 공간 조건

- 지상, 통유리 : 재난, 긴급 상황시 소통 및 접근이 가능한 통유리창과 지상층
- 방음 : 스피커 출력을 최대로 했을 때, 소음 발생이 되지 않는 벽
- 진동바닥 : 비트와 울림이 느껴질 수 있는 진동바닥 및 연습공간
- 디지털조명, 원형테이블 등 : 어디서든 수어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사무집기

2)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83, 3층(스튜디오), 4층(사무실)

3) 계약일 : 2023.07.05.(수)

4) 공사기간 : 2023.07.05.(수) - 07.31(월)

▼ 3층 스튜디오 내부 사진



▼ 4층 오피스 내부 사진



▼ 건물 외부 사진



▶ 농인 아티스트들의 공간 피드백

- 공간의 분위기나 전반적인 세팅 등 청인 중심 사회인 한국에서, 유일하게 농인을 위해 준비된 공간
- 바닥은 연습 진행할 때 박자감을 느낄 수 있으며 제작 과정에서 바닥 진동이 있어 소통, 진행의 퀄리티 높아짐
- 지상에 위치해있으며 통창으로 트여있기에, 날씨 및 갑작스러운 사고 등 외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기둥이 없어 시각적으로 배제되는 것 없이 전체를 볼 수 있으며 서로 보기 좋게 위치 배치하는데 제한이 없음
- 별도의 재질을 사용한 바닥으로, 발을 굴렀을 때 멀리 있어도 진동이 잘 전해져 박자 연습에 용이함
- 동료, 수어통역사와 수월한 소통을 위해 원형 테이블 배치로 정보권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업무에 더 빠른 진행할 수 있음

2. 핸드스피크 농예술아카데미 : 예비아티스트 40명 발굴

농인이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두고 수어통역의 배치 유무로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현 농교육 지원 체제의 문제점을 가시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농인 기획자가 준비단계부터 개입해서 농인 수강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청인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농문화의 이해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서 함께 공부했다. 또 무엇보다 통역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간접이 아닌 직접 교육을 받는 것이 앞으로 농교육의 과제라는 것을 고려해 농인 강사가 진행하는 아카데미도 추가했다. 통역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닌 **농인에게 온전한 교육환경과 농인 감수성을 기반으로 진행된 수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수업 참여자는 대체적으로 추후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것은 곧 예비아티스트를 발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1) 주제 : 2023 핸드스피크 아카데미 시즌2
- 2) 일정 : 2023.10.30.(월) - 12.04(월)
- 3) 장소 : 핸드스피크 스튜디오, 헤이그라운드
- 4) 과목(강사) : 연기 기초반(라겸재 배우), 연기 심화반(김정현 배우), 에세이(이슬아 작가), 수어문학(변강석 박사, 손청 강사), 현대무용(젼마 안무가), 스트리트댄스(신나영 안무가)
- 5) 대상자 : 예술에 관심있는 농인 청년 34명 → 예비아티스트 30명 발굴



▶ 핸드스피크 아카데미 시즌2가 궁금해! https://blog.naver.com/hand_speak/223319205490

‘지속의 방법’ 문화예술 교육 이후

“농 친화적인 교육환경”, “농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청년 강사의 교육”을 큰 트랙으로 과감한 시도를 한 것에 의의를 둔 것이 1차년도(2023년)의 성과였다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정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2차년도(2024년)에는 소극적이지만 깊은 질적 고민을 했다. 넓은 시야 확보와 진동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로어 환경에서 더 나아가 시각문화 기반의 기초한 농인교육 환경은 무엇일지 각 수업과 장르에 다른 니즈를 파악해서 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청년강사가 농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강사가 직접 고민해보고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프로그래밍해서 청년강사이지만 농인 수강생을 낯선 존재, 이타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함께 나아가고자하는 예술인으로 대하되 농 감수성을 가지고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청년 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혼자 만들어오고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생겨나는 질문이나 고민을 농 감수성을 갖고 있는 당사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연구하면서 적합한 교육을 만들어나가하고자 한다. 수강생의 공통적인 고민과 아쉬움은 교육이 짧다는 부분과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현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올해는 결과물을 만들고 이를 노출 시킬 수 있는 창작물을 교육과정에서 함께 만들어보고 이를 통해 수강생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주제 : 2024 핸드스피크 아카데미 시즌3
- 2) 일정 : 2024.08.01(목) - 12.20(금)
- 3) 장소 : 핸드스피크 스튜디오, 헤이그라운드
- 4) 과목(강사) : 연기(주장환), 현대무용(이경진), 에세이(양다솔), 조명연출(윤해인), 웹툰(윤수훈), 수어문학(변강석,손청)
- 5) 교육횟수 : 총 78회
- 6) 대상자 : 예술에 관심있는 농인 청년 38명 → 예비아티스트 10명 발굴



3. 예술 수어 어휘개발 및 교재 개발 : 예술 수어 어휘 755개 수집 및 교재 틀 설정

예술분야의 수어 어휘를 개발하고 개발된 어휘를 포함한 수어교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어휘개발은 현재 예술분야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어휘를 먼저 수집하였다. 대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무용, 사진, 연기, 연극, 연출, 영상, 작가 수업의 교재를 선정하여 전문어휘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어휘는 총 755개로 집계되었다. 755개의 어휘 중에서 어떤 어휘를 먼저 개발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재개발은 기존의 한국수어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수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교육과정, 관련된 논문 등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교재의 틀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예술 수어 어휘개발 및 교재 개발 진행 단계]

기존 한국수어 어휘 개발 방식은 한국어에 존재하는 어휘를 인공적으로 의미 분석해서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예술 어휘 개발 방식은 자연 언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언어 말뭉치)를 제작하고 필요 어휘를 그 안에서 수집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대부분 전문용어 한국수어가 만들어지고 책으로 출판이 되어도 현장에서 버려졌던 과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에서 농인 아티스트가 활동할 때 살아 숨쉬는 언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탄탄하게 설계하고 진행함으로써 예술전문 언어가 부재했던 기존 농예술 활동을 뒷바침 할 수 있다.

4. 2023 농예술 국제워크숍 <농MZ세대, 예술과 리더십 만나다>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예술인만의 전유물로서의 예술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사회에서 비로되되는 소수자성에 대한 표현과 사유로의 예술을 경험했다. 예술로 이어지는 리더십은 다수의 표준화 된 내용이 아닌 각 나라의 강사가 직접 농인으로서 사회에서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예술로 표현했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 경험을 공유하면서 리더십의 중요성과 마음가짐을 농인강사와 농인참여자라는 유대감 형성을 기반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리더십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었고 농 청년 리더들이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 1) 주제 : 농MZ세대, 예술과 리더십 만나다
- 2) 일정 : 2023년 5월 17일(수) - 5월 21일(일) 4박 5일
- 3) 장소 : 좋은아침연수원
- 4) 강사 : 해외 농인예술가 및 디렉터 4명
 - David de Keyzer(다비드, 프랑스) -플랑더이페스티벌(세계농예술) 디렉터
 - Leonardo Castilho(레오나르도, 브라질) - 음악(수어) 예술가
 - David Kurs(디제이커스, 미국) - DeafWest 극단 디렉터
- 5) 대상자 : 만 19~39세 농청년 20명
- 6) 내용 : 농인이 기획하고 창작하는 예술 창작과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해외에 다양한 농문화 기반 예술활동과 시도의 경험을 공유하며 영감을 얻고, 농청년이 청인 중심사회에서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토론함



▶ [국제워크숍 5일차] 우린 언젠가 또 만나요 https://blog.naver.com/hand_speak/223154815454

5. 2024 <농예술 제작 가이드> 다국어 제작

모든 배우에게는 교차적인 정체성이 있다. 과거 여성을 특정하거나 분리하는 차별적인 표현으로 ‘여배우’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여배우’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를 ‘배우’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과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모든 배우는 배우라는 정체성과 함께 각각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무대에 올라서 관객을 만나는 순간에는 모두가 배우 그 자체로만 존재하지만 관객을 만나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 배우는 각자의 고유함을 존중 받으면서 무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농문화 연기&제작 가이드>는 이 논의를 기점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농인배우가 청인의 연기와 청인의 작업 방식을 좇아 흉내내면서 마치 극복의 서사를 만들듯 무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농인 배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농인으로서의 존재를 존중받으면서 배우로서 창작물을 만들고 연기를 하는 것이 <농문화 연기&제작 가이드>의 이정표이다.**



<농문화 연기&제작 가이드> 웹 신규 제작



<농문화 연기&제작 가이드> 다국어 북디자인(60p)

● 농문화 연극예술학(입문)

영화, 연극과 같은 곳에서 대사, 표정, 몸의 움직임이 기존 연극예술학의 기본이라면 농문화 연극예술학에서는 연기적인 표정과 비수지신호(NMS, Non Manual Signal)의 구분, 수어를 가리지 않는 몸의 각도와 시선 연구, 대본번역연구 등이 농문화 연극예술학의 기본이 된다.

● HTS(핸드스피크 공연예술 자치규약, 청인과 함께 공연예술하기/

Handspeak Theatre Standards. ver-with Hearing)

농인&청인 아티스트가 함께 협약을 맺고 작업을 하면 문화 차이에서 오는 때로는 사소하고 때로는 무거운 오해들이 생겨 작업에 영향을 준다. 농인이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언어민족임을 알리고 농문화를 교육해서 동료 아티스트로 동등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다.

6. 농문화예술콘텐츠 기획&제작 120개 / 누적관람객 500만명

‘주목받기 시작한 농인배우 그리고 농인관객’

오스카 아카데미에서 농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국내 백상예술대상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농인 배우(핸드스피크 소속 박지영)가 여자연기상 후보에 올랐다. 농인배우가 무대에 등장하고 있고 단절되었던 농인관객은 공연장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국내 공연예술계에서는 장애인접근성과 관련된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인배우를 아직 청각에서 손실된 사람이라고 보는 관점은 극복서사를 다루는데 머물러 있고 농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공연 및 드라마에서는 농인역할을 맡은 청인배우가 등장하지만 농인 관객을 위한 배리어프리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배리어프리 공연이라고 하지만 서툰 수어통역사가 여러명의 배우 통역을 혼자하거나 하는 것이 현재 국내의 상황이다. **핸드스피크는 농인 아티스트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단체로 예술분야를 가장 가까이서 통역하고 있는 통역팀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 문화예술분야에서 농문화를 다루고 농인관객을 초대하는 분야에서는 핸드스피크가 유일하게 앞서나가고 있다.**



- 1) <농예술 제작 가이드> 조회수 1,070,000회
- 2) <This is me_핸드스피크 x 농인청년 메가크루> 조회수 190,000회
- 3) <보건복지부공익광고> 조회수 2,864,824회

▶ [#월간핸드스피크/5월] ♪LoseYourself-에미넴/수어(KSL·Korean Sign Language)Cover/김지연(of Handspeak)
https://youtu.be/Pl_t6WO1p9s

7. 해외활동 : 미국,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등

농인 당사자 예술인이 모여서 농문화에 기초한 예술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단체는 국내에서 핸드스피크가 유일하다. 이것은 특별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쉽게 고립되고 고여서 머무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 나가는 해외 농인예술인과의 교류가 중요하다. 핸드스피크는 2023년 독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초청을 통한 농인예술인과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세계 농예술의 동향을 살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초청공연을 통해서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농예술을 세계 무대 앞에서 선보이며, 해외 유명한 아티스트(팀)들과 콜라보를 약속하고 왔다.

1)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9.26.(화) - 10.08(일)

- : 2023년 남아공수어(SASL)를 12번째 공용어로 인정됨을 축하하는 초청공연 및 강연
 - MCK 농학교(MCK Special School for the Deaf)
 - SV 농학교(St Vincent School for the Deaf)
 - eDEAF 농직업학교(eDEAF, Employ And Empower Deaf Pty Ltd)
 - CFDS(Changing the face of Deaf Education in South Africa, 농교육연구센터)5년 기념식
 - Film & Arts Festival(농예술, 영화제)
 - FunDay(농어린이 워크숍)
 - 주남아공한국대사관 국경일 기념행사

2) 독일 2023.11.09.(금) - 11.11(토)

- : 국제 농인 영화제인 델라 영화제(della AWARD 2023)의 시상식&파티 축하
 - 탈리아 키노(Thalia Kino), 스튜디오 바벨스베르크(Studio Babelsberg) 포츠담 독일



▶ 핸드스피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뒀다! https://blog.naver.com/hand_speak/223310376910

3) 농예술 국제워크숍 <핸드스피크 x 데프웨스트>

'Deaf Theater as Activism'

농인이 모여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예술을 만들어낼 때 진짜 농인을 위한 예술이 만들어진다. 이 예술만이 바로 청인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얼핏보면 한국과 미국이라는 국가 간의 교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계의 모든 농인은 같은 경험과 고민 그리고 농문화를 공유하는 소수언어민족으로 이어져 있다. 우리는 이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할 것이고 그것은 농문화예술로 만들어질 것이다. 농문화를 기반으로 예술문화 활동을 주체적으로 만들고 이를 오랜기간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농인 극단 Deaf West와의 뮤지컬 제작 협업 시도를 통해 한국 농문화예술 동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주제 : 핸드스피크 x 데프웨스트 음악&연기 워크숍
- 2) 일정 : 2024.07.15.(월) ~ 2024.07.29.(월) (15박16일)
- 3) 장소 : Deaf West(CTG), 601 W Temple St, Los Angeles, CA 90012
- 4) 대상자 : 뮤지컬 창작진·배우 30명, 제작진·감독 10명
- 5) 내용
 - 기획&농예술디렉팅 방식 논의
 - 뮤지컬 장면 음악&연기&동선 워크숍
 - 수어 안무 연습
 - 워크숍 발표

▶ [워크숍] 미국 농예술극단 데프 웨스트 워크숍에 다녀온 핸드스피크

https://blog.naver.com/hand_speak/223667155448

4) Festival Clind'Oeil(프랑스)

농 연기, 농 무용, 농 디자인, 농 필름, 농 음악 등 자신의 예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농 예술인에게 국제 농 예술문화 축제는 단순히 국제행사여서가 아니라 농 예술인으로써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농 문화예술이 무엇인지는 각 나라가 서로 다르면서 농 문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같기도 하다. 이 축제에서 온전히 관객으로 존재하면서 문화 예술을 즐기고 거기서 얻은 영감을 가지고 한국에서 펼쳐 나갈 농 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성장은 그대로 한국의 활동에서 이어질 것이고, 나와 같은 농인의 롤모델 유/무 여부는 활동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소수언어를 사용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세계로 연결된 Deaf Network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으며, 국제교류의 가치는 여기서 시작된다. 6년간 끈끈하게 협업해 온 프랑스와 전세계 농예술을 선보이는 페스티벌에서 한국 농예술의 퀄리티를 공유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확장시킨다.

<Festival Clin d'Oeil 2024> 2024.07.04.(목) - 07.07(일)

: 해외 농예술 축제 'Festival Clind'Oeil 2024(프랑스)'에서 한국의 새로운 농예술콘텐츠를 선보이며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국제협업 및 해외 초청공연으로 이어짐

- 연극 '맥베스(Macbeth)' 마네즈(Manège)극장 공연(4회)
- 퍼포먼스 '데프파티(Deaf Party)' 빌리지(Village) 공연(12회)
- 농예술 컨퍼런스 패널 (Panel-Empowering Deaf Theatres), 코미디(Comédie)(1회)
- 어린이 워크숍(Youth Workshop), 빌리지(Village) 강의(4회)
- 어린이 워크숍(Youth Workshop), 빌리지(Village) 발표회(1회)
- 개막식 퍼포먼스 '취객(Drunk)', 코미디(Comédie) 공연(1회)



▶ 2024년, 프랑스에서 열린 끌랑데이 페스티벌에 핸드스피크가 출동하다!

https://blog.naver.com/hand_speak/22355796276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8. 수상 : T4P 미디어상(Together for Peace Media Awards) TV-다양성 강화 부문 수상

핸드스피크의 활동 계기와 기반이 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농인 셋 청인 하나”는 한국에서 농문화에 기반한 농인의 예술 활동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담고 있다. 이 영화의 가시화를 통해서 지지자층을 확보하고 앞으로 핸드스피크가 필요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질 때 힘이 되는 자료로 계속해서 언급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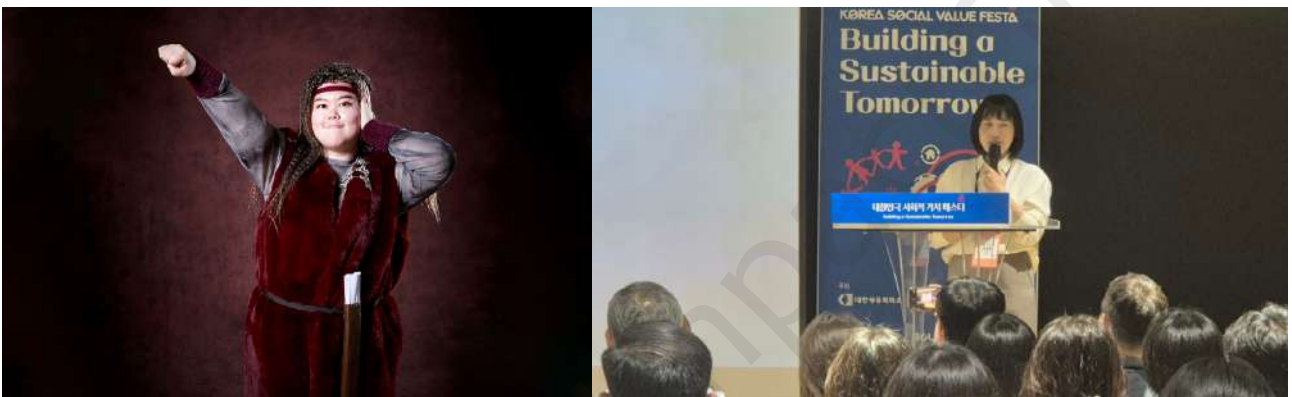
▶ ABU-유네스코 주관 국제상, '다큐 인사이트 '농인 셋 청인 하나' 수상작 선정

<http://www.speci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645>

9. 홍보 노출 : 552건 언론 323건, SNS 229건
 - 1,320건(누적) 언론 806건 / SNS 514건

“내가 예술의 길을 갈 때 제일 크게 반대하셨던 어머니가 지금은 공연 때마다 빠짐없이 보러 오신다.
 내가 출연한 공연이나 TV 프로그램 장면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기도 했고 감사했다.”(김우경 아티스트 인터뷰 중)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상자(농인)들을 고려하고 필요성을 인지하는 인식이나 지속가능한 제도, 그 다음에 농문화 삶에 기반한 정책들, 누군가의 설득이 아니라 의무화가 될 수 있는 법률들이 만들어져서 삶에서도 일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언론과 인터뷰, 법률제정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통해 꾸준히 노출시키며 핸드스피크 미션과 비전, 그리고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 ▶ [\[이음웹진\] 나만의 표현으로 언제 어디서나 반짝이는 존재감 나는 예술가다①](https://www.ieum.or.kr/user/webzine/view.do?idx=607)
- ▶ [\[더나은미래\] 농인 아티스트 3명에서 70명으로... '핸드스피크'의 성장 스토리\[사회적 가치 페스타 zoom\]](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100055)



- ▶ [\[EBS NEWS\] <뉴스브릿지> '보이는 언어'로 만드는 예술...농인 아티스트들의 '핸드스피크'](https://news.ebs.co.kr/ebnews/menu1/newsAllView/60396492/H)
- ▶ [\[SBS NEWS\] 수어로 풀어낸 무대 위의 예술...감동 전하는 연극배우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41553)